

2019-2021년 식품산업 경영성과분석

김상효 · 이용선 · 주준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2019~2021년 식품제조업 경영지표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에는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큰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식품제조업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생활 영향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한편, 2020년 기준 식품제조업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무안정성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무안정성 지표 중 부채비율에 있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편차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보다는 회복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식품제조업의 성장성은 꾸준히 유지된 편이며, 음식점 및 주점업의 2021년 성장성은 2020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편이지만 완전히 회복된 모습은 아님.
- ▶ 기본적으로 전산업 또는 전체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1년차인 2020년도에 마이너스 매출액 성장을 기록하였고, 2년차인 2021년에는 두 자릿수 매출액 증가율을 보임. 이러한 양상과는 달리, 식품제조업에서는 2020년 매출액과 2021년 매출액 증가율이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특징을 보임(각각 6.3%, 6.1%).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외식 수요가 줄어든 반면, 집밥 수요가 늘면서 식품제조업의 꾸준한 성장을 견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 ▶ 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 매출액 증가율이 두 산출방식(1~3분기 평균, 1~4분기 평균) 모두에서 마이너스(-1.6)를 기록한 후, 2021년에 크게 회복(12.8%)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전산업 또는 전체 제조업 평균과 유사한 양상임. 음식점 및 주점업(외식업)의 경우, 2020년 총자산 증가율의 상승세(1~3분기 평균 시 0.3%, 1~4분기 평균 시 7.5%)가 2019년 대비 둔화된 이후 2021년에 -0.5%로 음의 성장을 보였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2020년 음의 성장을 보였으나(1~3분기 평균 시 -16.3%, 1~4분기 평균 시 -8.5%), 2021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 2021년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배달/테이크아웃의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음식점 및 주점업은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므로 해당 정책의 강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행동이 수시로 변화했기 때문에 연도별 성장성 지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반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으며, 받은 영향도 성장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표 1. 산업 전반 성장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시점	전산업	제조업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액 증가율	2019	0.4	-1.7	3.3	1.3	6.7
	2020	-1.0	-2.3	6.3	-1.6	-8.5
	2020*	-5.0	-5.4	4.3	-5.1	-16.3
	2021*	13.8	17.1	6.1	12.8	10.5
총자산 증가율	2019	6.1	3.3	5.7	0.2	13.3
	2020	7.9	5.9	5.8	0.1	7.5
	2020*	1.5	1.9	2.5	1.2	0.3
	2021*	2.6	2.7	2.2	2.8	-0.5

주 1) 2020*, 2021* 수치의 경우, 1~3분기 수치의 평균값임(이외에는 1~4분기 평균). 연말인 4분기에는 각종 지표들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2) 식품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음료, 담배를 포함함.

3)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숙박업을 포함함.

4) 총자산증가율 및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에 해당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원료곡물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대체로 개선, 음식점 및 주점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2021년 수익성은 크게 악화

- 식품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3.9%, 2020년 4.0%, 2021년 6.5%로 코로나19 발생 2년차인 2021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산업 및 제조업 평균과 유사한 양상임.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2.5%, 2020년 -2.3%에서 2021년 -4.2%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 2020년과 2021년 가공식품 가격(물가)은 전년 대비 각각 1.4%, 2.1%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동기간 원료곡물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5.6%, 34.6% 상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것은 온라인 주문의 확대, 프로모션/홍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됨.
-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살펴본 결과, 식품제조업은 2019년부터 해당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음식점 및 주점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21년 -102.9%로 크게 악화

- ▶ 식품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이자부담 능력이 점차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이자부담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표 2. 산업 전반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시점	전산업	제조업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2019	4.2	4.4	3.9	9.6	2.5
	2020	4.2	4.6	4.0	10.1	-2.3
	2020*	5.2	5.1	7.3	4.9	-2.5
	2021*	7.1	8.4	6.5	6.2	-4.2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2019	3.7	4.2	3.3	7.5	2.0
	2020	3.9	4.6	4.0	7.7	-2.1
	2020*	5.2	5.1	7.8	4.5	-2.5
	2021*	8.2	9.7	6.8	7.0	-11.0
이자보상 비율	2019	326.5	496.7	430.7	744.3	224.7
	2020	329.0	541.4	505.6	837.2	-
	2020*	448.4	588.8	900.3	316.1	-
	2021*	754.0	1204.7	890.8	535.3	-102.9

주 1) 2020*, 2021* 수치의 경우, 1~3분기 수치의 평균값임(이외에는 1~4분기 평균).

연말인 4분기에는 각종 지표들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2) 식품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음료, 담배를 포함함.

3)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숙박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21년 재무안정성은 식품제조업의 경우 개선, 서비스업의 경우 다소 악화됨

- 전산업 및 제조업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2019년 대비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다가 2021년 모든 지표에서 개선이 나타남. 식품제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도 동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54.9%까지 상승함.

- ▶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수요 충격 기간에 식품제조업은 재무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 온 것으로 판단됨. 가정 내 식료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가 지지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2019~2021년 기간 동안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강력한 방역지침들이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이러한 수익성 악화가 부채비율 증가 및 외부 차입금의존도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

표 3. 산업 전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계정별	시점	전산업	제조업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자기자본비율	2019	46.4	57.6	49.0	51.2	32.7
	2020	45.8	56.7	49.5	52.0	30.1
	2020*	53.4	59.5	56.1	46.2	34.1
	2021*	53.5	59.9	54.9	47.3	33.8
부채비율	2019	115.7	73.5	104.2	95.3	205.9
	2020	118.3	76.3	102.0	92.3	232.7
	2020*	87.2	68.0	78.1	116.2	195.0
	2021*	86.4	66.7	82.5	111.0	196.7
차입금의존도	2019	29.5	22.8	31.7	25.9	34.2
	2020	30.4	23.4	32.5	25.2	39.2
	2020*	25.4	21.6	24.8	30.0	29.7
	2021*	24.3	20.0	26.1	28.1	34.4

주 1) 2020*, 2021* 수치의 경우, 1~3분기 수치의 평균값임(이외에는 1~4분기 평균).

연말인 4분기에는 각종 지표들이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2) 식품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음료, 담배를 포함함.

3)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숙박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9-2020년 기업 규모별 식품제조업 경영성과 비교

- 2019년 대비 2020년 식품제조업의 성장성 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총자산증가율 측면에서 대기업 대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개선 폭이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증가율에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5~7%를 나타내 기업규모 간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은 감소했음에도 총자산 증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자산 증가의 형태가 유형자산의 투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부채나 재고 증가로 인한 것이라 추정됨.

- 2019년 대비 2020년 식품제조업의 수익성 지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각각 4.4%와 3.6%로 전년 대비 0.5%p 이상 상승하였으나, 중견기업에서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소폭 하락함(4.1% → 3.8%). 다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전년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음.
- 2019년 대비 2020년 식품제조업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에 있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편차가 전년 대비 소폭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비해 중소기업의 열악함은 재무안정성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 및 차입금 관리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 제조업 및 식품제조업 기업규모별 경영지표 비교

단위: %

	구분	규모별	2019			2020		
			제조업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	음료
성장성	총자산 증가율	대기업	2.1	3.6	-1.0	5.0	1.9	-1.2
		중견기업	1.4	-2.1	-4.8	3.5	3.1	-1.0
		중소기업	6.1	8.8	7.6	8.1	11.3	8.3
	유형자산 증가율	대기업	1.7	4.2	0.1	3.0	0.3	-1.1
		중견기업	1.2	9.0	2.3	-1.2	-0.1	-1.8
		중소기업	5.7	8.7	10.5	7.6	11.4	5.7
	매출액 증가율	대기업	-3.4	0.2	1.0	-4.2	5.2	-2.6
		중견기업	-1.0	-0.3	3.9	-4.4	6.0	4.3
		중소기업	1.8	6.8	3.2	1.5	7.4	5.7
수익성	매출액 세전순 이익률	대기업	4.8	3.5	7.9	5.0	4.4	8.1
		중견기업	4.2	4.1	4.8	4.8	3.8	6.0
		중소기업	3.2	3.1	4.9	3.8	3.6	4.9
	매출액 영업 이익률	대기업	4.7	4.2	10.3	4.8	4.3	10.8
		중견기업	4.5	4.0	5.4	4.4	4.1	8.5
		중소기업	3.8	3.6	4.6	4.2	3.6	4.9
재무 안정성	부채 비율	대기업	58.3	80.7	90.1	61.5	75.5	85.8
		중견기업	76.7	70.4	97.6	74.9	72.2	85.7
		중소기업	122.0	148.6	132.6	122.3	150.5	142.1
	차입금 의존도	대기업	17.3	23.9	23.3	17.8	24.2	22.3
		중견기업	22.0	21.2	24.9	21.9	21.8	21.3
		중소기업	35.4	42.4	41.1	36.1	43.1	41.7

주 1) 식품제조업의 경우 식료품, 음료, 담배를 포함함.

2)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숙박업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요약 및 시사점

- 2019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이듬해인 2021년까지 식품제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개선 및 현상 유지의 양상을 보였으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은 2021년에 들어서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식품제조업은 타 제조업과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수요 충격이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내수 및 수출시장 모두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2019년 이후로 하향세를 보여왔으나, 2021년부터 매출액 증가율은 성장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하락한 2020년에 대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정
- 2020년의 식품제조업의 전년 대비 기업규모별 경영지표의 경우,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총자산 증가율이 상승했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일정하게 유지
- 2020년 식품제조업의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이 2019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무안정성은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2019년 80.7%에서 2020년 75.5%로 소폭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모두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저자정보

- 김상호 연구위원(061-820-2218) skim@krei.re.kr
- 이용선 명예선임연구위원(061-820-2320) yslee@krei.re.kr
- 주준형 위촉연구원(061-820-2016) jhjoo@krei.re.kr